

【부속문서 2】



필리핀의 전통 줄다리기 의식¹

노마 레스피시오 | 필리핀대학교 교수

세실리아 피카체 | 필리핀 국가문화예술위원회 기획관

헤수스 페랄타 | 필리핀 국가문화예술위원회 자문관

필리핀에서 진행되는 가장 대중적인 민속놀이는 줄다리기다. 그러나 지역별로 그 양상이 다르며 명칭 또한 다양하다. 마그발룻(바실란의 야칸족), 구귀요드(루손 섬 북부 코르딜레라 지방의 여러 마을), 수옹간(민도로의 망얀족), 고루요단(민도로의 하누누 망얀족), 쿨리웃 (바탕가스의 바탕구에노족과 누에바에시하의 일로카노족), 본로타이(세부의 세부아노족), 디노론(대나무 장대 밀기), 힐라향 루비드(밧줄 잡아 당기기), 힐라한(인간 줄다리기) 등 여러 명칭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민속놀이 중 푸눅(punnuk)만이 농경의례의 일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푸눅은 이푸가오 민족언어집단의 두 갈래 중 하나인 투왈리족의 전통 줄다리기 의식을 말한다. 투왈리족은 이푸가오 주 흥두안 시에 주로 거주한다(중간 보고서, 2013)

1. 이푸가오

이푸가오는 코르딜레라 행정구역(CAR)에 속한 여섯 개 주 중 하나이며, 필리핀 루손 섬 중북부에 위치한다. 경사가 급한 북서쪽에서 완만하게 굽이치며 남동쪽으로 뻗어 내린 산맥을 경계로 하는 내륙 유역 지역이며, 아홉 곳의 고산 지대에서 볼 수 있는 장대한 계

¹ 필리핀에서 전통 줄다리기는 스포츠 줄다리기('tug-of-war')와의 명칭을 구분하기 위해 '줄다리기 의식(tugging ritual)'이라고 칭한다.

단식 논은 이 지역의 비경으로 손꼽힌다. 산비탈 전면이 거대한 계단처럼 만들어진 마요야오와 바나웨 지방의 계단식 논이 가장 유명하다.

이푸가오 주에는 이푸가오족이라 불리는 언어집단이 거주한다. 이 언어집단은 투왈리(Tuwali), 아양간(Ayangan), 그리고 이 지역에 세 번째로 유입된 칼랑구야(Kalanguya)라는 세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칼랑구야족과 투왈리족의 결합으로 항루루(Hanglulu)족이 탄생했고, 이는 켈레이-이(Keley-i), 야뚜카(Yattuka), 디칼라이(Dikkalay)라는 하위부족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투왈리족은 18개의 하위부족으로 나뉜다.

1. 일라그-아우-문카나페(Ilag-aw-Mumkanape)
2. 이부네 (Ibunne)
3. 문키고-아(Munkigoj-a)
4. 문-알리온(Mun-alyon)
5. 뭉가노/뭉칼료(Mungano/Mungkalyoj)
6. 칼라(Kala)
7. 야뚜카(Yattuka)
8. 이파카월(Ipakawol)
9. 이문타비웅(Imuntabiong)
10. 이할리압(Ihaliap)
11. 이볼리왕(Iboliwong)
12. 룬바박(Lumbabag)
13. 디칼라이(Dikkalay)
14. 이카만닥(Ikamandag)
15. 이바나월(Ibannawol)
16. 이캄블로(Icambulo)
17. 이고항(Igohang)
18. 이하포(Ihapo)

아양간족은 네 개의 하위부족으로 나뉜다.

1. 이올릴리콘(Iolilicon)
2. 이아리밋(Ialimit)

3. 이하낭가(Ihananga)

4. 이귀니혼(Iguinihon)

항루루족은 두 갈래의 아시폴로족 계통의 하위부족으로 나뉜다(암둔톡-아시폴로 두 부족의 결합)

1. 암둔톡의 야뚝카(Yattuka, 투왈리족에 가까움)

2. 티녹의 켈레이-이(Keley-i, 혹은 디갈라이, 칼랑구야족에 보다 가까움)

칼랑구야족은 세 개의 하위부족으로 나뉜다.

1. 이따야(Iddaya)

2. 이타부이(Itabuy)

3. 이티넥(Itinec)

이푸가오족은 농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다. 산비탈 전면을 뒤덮은 거대한 계단식 논에서 습식으로 쌀을 경작하거나 건식으로 고구마를 비롯한 밭작물을 재배한다. 농한기에는 채소를 재배한다. 비중은 적지만 수렵과 채집 활동을 통해서도 식량을 확보한다. 이푸가오의 한 하위부족은 제의와 연관된 목공예 기술이 뛰어나며, 나머지 부족들은 직조 기술이 뛰어나다.

이푸가오족은 우주를 관장하는 수백 위(位)의 신들을 섬기는 복잡한 토속 종교를 가지고 있다. 개인과 집단 행사 모두 복잡한 의식들이 수반되며, 성인 남성이 주축이 된 사제 집단이 의식을 주관한다. 이푸가오족은 또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대서사시로 유명하다.

II. 이푸가오족의 농사 주기

바나월 (현재의 바나웨) 지역에는 기원전 1545~1000년 사이에 이미 인간이 거주한 집터의 흔적이 남아 있다. 분가할리안의 경우 7세기에, 나비운의 경우 1195~1380년 사이에 계단식 논이 활용되었음이 보고된 바 있다. 보코스과 바나웨의 경우, 1486~1788년 사이에 쌀농사의 증가에 따라 계단식 논이 급속하게 확산되었다.